

2019학년도 동계 일본 단기프로그램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파견국가	일본	파견도시	나고야
파견대학	스기야마대학교	기간	2020. 02. 05. ~ 02. 15.

2. 파견대학, 수업, 필드트립 등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해 서술해주세요. 스기야마여자대학교는 나고야시 메이토구에 위치해있습니다. 히가시야마 선 호시가오카역에서 내린 후 도보 5분 위치에 있으며, 학교는 조용하지만 바로 옆에 적당한 규모의 변화가가 있습니다. 시설은 깨끗하며, 사용하기에 편합니다.
수업	수업내용, 수업방법,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 프로그램 중 진행되는 수업은 크게 3가지 종류로 나뉘어집니다 (일본어 수업, 교양과목 강의, 문화체험 수업) 일본어 수업의 경우, 스기야마대학교 내에서 국제교류센터에 계신 일본인 선생님이 직접 가르쳐주십니다. 그룹이지만 수준에 맞춰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자신이 배우고자 하면 더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일본어를 이미 수준급으로 할 경우에는 수업내용이 기초적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수업은 단어 -> 문장 -> 응용 -> 연습 -> 발표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계속 일본어를 사용하며, 일본어에 대한 감을 깨우칠 수 있습니다. 교양과목 강의에 경우 실제 스기야마 대학교의 교수님들이 오셔서 강의를 해주십니다. 저의 경우는 교육학과 경제학에 대해서 들었는데, 교수님들이 모두 영어와 일어를 섞어서 강의해주시기에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어려운 내용의 강의도 아니고, 상식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 내용으로 설명해주십니다. 문화체험 수업은 일본의 문화에 대해 배웁니다. 다도, 아이키도, 기모노, 샤미센, 일본 가정식 요리 등을 스기야마 대학교 친구들과 함께하며 배웁니다. 특히 이 수업을 할 때는 스기야마의 각 클럽 학생들이 와서 도와주면서 이들과 이야기하며 일본어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필드트립	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필드트립)에 대해 서술해주세요. -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여부 등
	학교를 벗어나 다른 곳에 간 활동은 크게 3번이었습니다. 나고야 오스, 이누야마, 게로입니다. 그 중 오스와 이누야마는 오후 시간에만 다녀온 활동이었고 게로의 경우, 하루 전체로 다녀왔습니다. 전부 왕복 교통비는 지원되었습니다.
	오스 : (지하철비 지원) 스기야마 학생들과 함께 나고야 상점 방문하면서 쇼핑하기, 우리나라의 인사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념품 등의 쇼핑을 하실 때 비용이 듭니다.
	이누야마 : (학교 스쿨버스 및 입장료 지원) 스기야마 학생들과 함께 이누야마성, 박물관 등을 방문하면서 일본 문화에 대해 이해했습니다. 이누야마 내에서 먹는 것과 사는 것은 모두 자신의 비용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게로 : (왕복 JR 기차비용 및 온천, 엽서 체험 비용 지원) 점심식사만 자신이 지불하면 됩니다. 스기야마 학생들과 함께 온천이 유명한 게로시에 가서 온천을 하고, 일본 전통 종이로 엽서만들기 체험을 했습니다.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현지 기후 및 유의점 한국과 거의 유사하지만, 전반적으로 조금 더 따듯합니다. 비가 올 수 있으니 우산을 지참하면 훨씬 편합니다.
안전	현지 안전 상황 기숙사나 학교의 위치를 보며 굉장히 안전이 확보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숙소	홈스테이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전반에 대한 평가 스기야마 대학교의 기숙사를 사용하게 됩니다. 기숙사는 잇사역에 위치해 있으며 매일 아침 학교로 가는 스쿨버스를 이용해서 가면 교통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깨끗했으며, 기숙사 통금은 10:30입니다. 배부받은 키를 가지고 기숙사 출입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식사	학교식당 () 외부식당 (○) 기타 () 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

	점심시간에는 거의 학교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저녁은 외부식당에 가서 먹었습니다. 학식이 괜찮은 편입니다.
교통	시내교통 관련 기숙사는 잇사역, 학교는 호시가오카역이기 때문에 모두 히가시야마선을 타고 갈 수 있습니다. 나고야역, 사카에역까지 환승하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지하철비용이 비싸니 (나고야역까지 270엔) 이동 시 유의해주세요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항목	비용(원)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교통비	50000	지하철 비용
식비	250000	아침, 점심, 저녁 모두 사먹어야합니다
쇼핑	200000	
액티비티	50000	아쿠아리움 입장료 등
합계	550000	쇼핑하지 않는다면 40만원만 준비해도 여유로울 것 같습니다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생각했던 것보다 낯선 느낌이 아니시기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겨울의 기숙사는 조금 추운 느낌이 있었고, 실제로 나고야의 날씨가 변덕이 많았기 때문에 얇게 겹쳐입을 수 있는 옷이 많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다른 학교 친구들과 얼마나 잘 지낼 수 있는지에 따라 프로그램의 재미가 바뀝니다. 저의 경우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나서 재밌게 보낼 수 있었기에 친구들에게 감사하지만, 같이 프로그램을 하는 친구들 (거의 매일, 매시간 붙어있음) 과 맞지 않는다면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블로그에 기록한 느낌>

사실 시국이 시국이라 갈까 말까 무척 고민을 많이했다. 외교적 관계도 그렇고, 전염병도 그렇고 $\pi\pi$ 나도 모르게 되게 많이 걱정을 했었던 것 같다. 우선 한국이랑 일본이 사이가 안 좋은 상황인 건 사실이니까, 괜히 가서 마찰이 생기지는 않을까! 혹여 우리나라를 안 좋게 말하거나 그러면, 가만히 있지 못하는 성격인 내가 어떻게 해야할까 등등.. 그런데 너무 좋은 사람들을 만났다. 외교적 관계가 이렇더라도 한국을 좋아하는 많은 친구들을 만났고, 그 친구들이 내가 어려움에 처하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었기에 무사히 일본에서 10일을 지낼 수 있었다. 국적과 전공을 불문하고, 언어의 차이를 뛰어넘어서 서로 대화하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좋았다. 가장 놀란 건 학교 측에서 준비해주신 프로그램이었는데 일본어 수업 뿐만 아니라, 실제로 교수님들이 오셔서 학교에 교환왔을 때 들을 수 있는 수업을 강의해주시기도 하셨고 문화체험, 필드트립 등 하나도 아쉽지 않게 꾸려주시고 매 프로그램마다 일본인 친구들을 붙여주셔서 정말 알찬 10일을 보낼 수 있었다. 처음에는 항공권이랑 식비 다 내가 준비해가야한단 말에 당황했는데, 전혀 투자한 돈이 아깝지 않았다.

그리고 이번에 나가서 우리나라 문화의 위상을 다시금 알 수 있었다. 3년 전에는 우리나라 가수들의 노래나, 포스터가 거리에 붙어있지 않았는데 3년 사이에 확 높아진 위상을 몸으로 톡톡히 느꼈다. 이렇게 한국을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에 감사하며, 이런 현상이 꼭 이어져서 문화로 굳혀졌으면 하는 바람이었다.

개인적으로는 이 시기에 나가서 다행이었다. 생각 정리도 톡톡히 할 수 있고, 명확하게 좀 더 뭘하고 싶은 지 깨달았다. 이제 남은 건 선택과 집중! 좋은 경험으로 연초를 열었으니 이 감정과 느낌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일본에서 만난 모든 인연에 감사하며
다음에 또 볼 수 있기를!

<https://blog.naver.com/maibin0121/221802538973>

<https://blog.naver.com/maibin0121/221812941620>

블로그에 자세히 기록해놨습니다! 필요하시면 봐주세요 :)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필수)

	
이누야마성앞에서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	이누야마성 위에서 찍은 사진
	
다도체험	산코이나리 신사에서
	
Farewell party에서 찍은 사진	일본문화 체험 - 기모노 / 샤미센